

인공수분 용 꽃가루 배 재배 농가에 지원

나주시, 1억5천만원 들여 확보 나서

나주시의 배 재배 농가들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인공수분을 위한 꽃가루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올해 1억5천여만원을 들여 꽃가루를 확보, 배 재배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지원 계획에 따라 1천여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공수분은 튼실한 배를 얻기 위해

수술을 인위적으로 암술에 묻혀 주는 것으로 착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공 수분의 적기를 놓칠 경우 한해 배농사에 차질을 빚게 돼 매년 봄철이면 농민들이 꽃가루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나주시의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신고' 배는 자가수정

을 할 수 없어 농가들이 꽃가루 확보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여기에다 꽃이 피는 기간이 매우 짧아 한정된 시간에 인공 수정 작업을 위해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해야 하는 등 영농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인공수분은 배 농사의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과정이어서 앞으로도 농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별자리 분양 받으세요”

고흥군, 달 등 705개 가족단위 신청 받아

우주항공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고흥군이 별자리를 분양한다. 고흥군은 올 연말 외나로도 우주센터 준공과 우주전문과학관 착공 등에 맞춰 우주 별자리를 분양하는 이벤트를 추진키로 했다. 분양대상 별자리는 달과 금성,

화성을 비롯해 800mm급 천체망원경으로 관측이 가능한 10등급 이상 별자리 별 597개, 태양계 별 108개 등 모두 705개로 군민을 제외한 전 국민이 가족단위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고흥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식을 다운 받은 뒤 다음달 19일까지 군청(지역활력화사업단)에 보내면 된다. 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추첨 방식이 도입되며 4월 중에 분양 인증서와 함께 회원카드도 지급한다. 별자리를 분양받은 가족은 내년 말 준공될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입장권 50% 할인과 ▲과학관 주관 각종 이벤트 행사 무료 입장 ▲올 연말 인공위성 발사 때 초청 ▲고흥관광 안내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진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고로쇠 수액 효능 높이려면 채취 현장에서 제철에 마셔야”

전남도, 적극 홍보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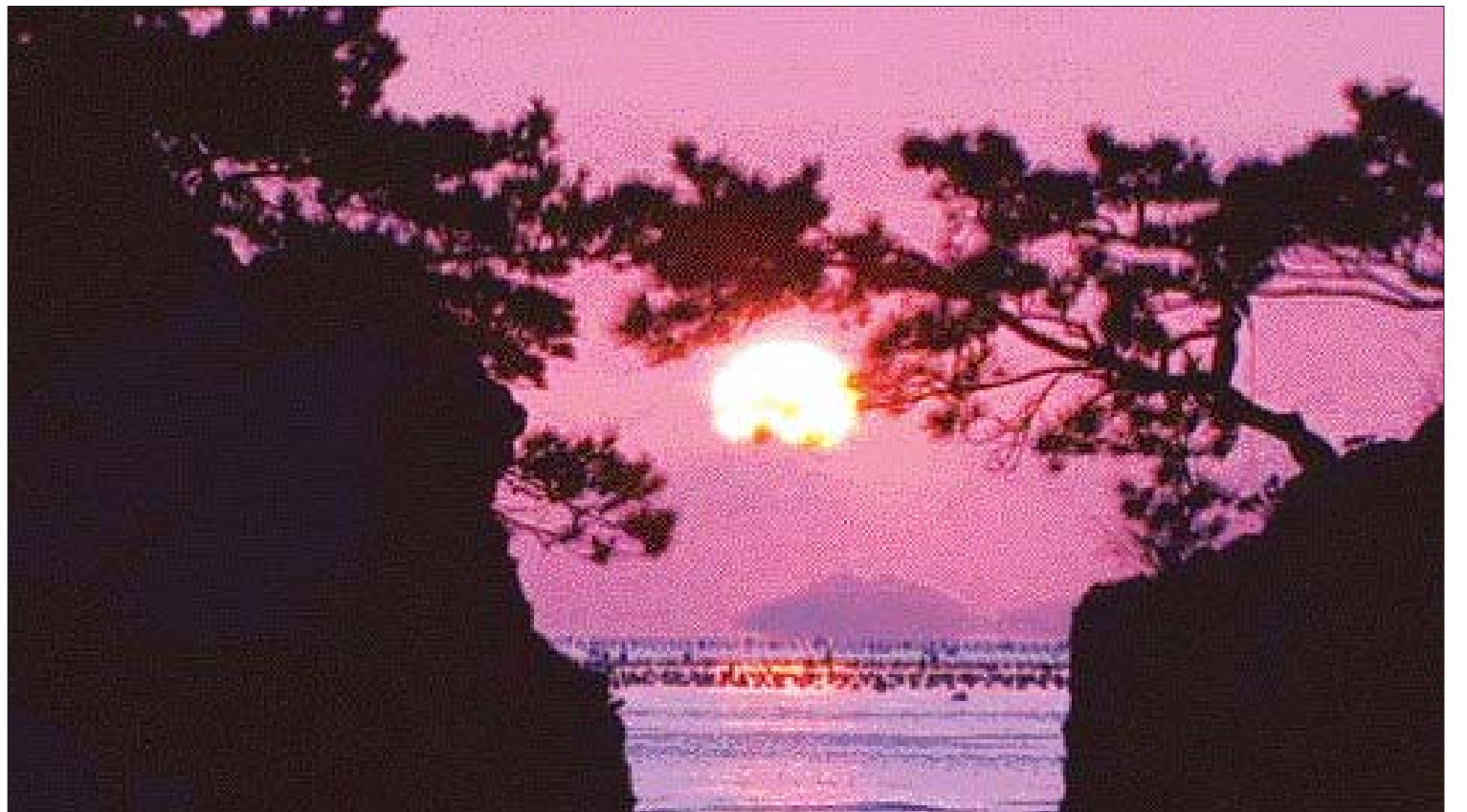
“고로쇠 수액 효과는 채취 현장에서 제철에 마시는 게 으뜸입니다” 최근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화되면서 효능과 마시는 방법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성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고로쇠 홍보에 나섰다. 성분 분석 결과 포도당과 과당, 자당을 비롯해 빠른 소화하는 성분인 갈색 외에 칼륨, 마그네슘 등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골다공증 및 위장병, 신경통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취 현장을 찾아 따뜻한 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오징어 등을 결들이면 보다 많은 양을 마실 수 있고 마신 뒤 노폐물 배출로 신진대사를 촉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일교차가 큰 2~4월 중에 채취해 마시는데 잠에서 흡수력이 뛰어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셔도 포만감이 들지 않고 탈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전남지역은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2천339ha, 11만 2천 그루에서 126만 5천ℓ를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

완도 삼산리 경로 복지회관 준공



완도군 금당면 삼산리에 경로 복지회관이 신축됐다. 완도군은 지난 15일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김부용 의장, 강형원 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8천만원의 예산으로 복지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62세대 128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삼산리는 그동안 복지회관이 없어 마을 행사 등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 땅끝 섬과 섬 사이 일출 ... 관광객 '복적'



해남군 송지면 갈무리 '땅끝마을'은 매년 2월과 10월이 되면 해돋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온 사진작가와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진 2월 해돋이에도 매일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다.

2월·10월 1년에 두차례 '장관'

이곳의 일출은 특이하다. 땅끝마을 선착장 끝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에 매미 한쌍을 닮았다고 해서 '맷섬'인 두개의 섬이 있다. 맷섬은 가운데가 비어 있고 약 13m 높이의 섬 정상에는 울퉁불퉁한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박혀 있다. 바로 이 두 섬 틈 한가운데로 해가 떠오르면 하

늘과 바다가 온통 불바다를 이루며 황홀경을 연출한다. 이처럼 맷섬의 일출 감상이 1년에 단 두차례에 불과한 것은 지구의 공전으로 일출장소가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인구 위주 선거구 짜맞추기로 지역 소외”

합평 주민들 뿔났다

88년 이후 국회의원 배출 못해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합평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기존 합평·영광 지역구를

장성이 포함된 합평·영광·장성과 합평·나주로 변경하는 잠정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평지역 각급 사회단체는 지난 18일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합평지역 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선거구 획정기준은 국가의 기본사항인 영토주의를 무시한 위험”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민 A씨는 “지난 88년 이후 상대적인 인구 열세로 합평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정치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다”며 “이는 곧 정치적 소외로 이어져 지역의 쇠락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구가 9만 5천여명인 반면 합평군은 3만 8천여 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여도 초·중 기부채납 추진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자체 기금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여도 초·중학교를 전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도교육청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여수산단 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GS 칼텍스와 LG 화학 등 산단에 입주해 있는 7개 기업이 기금을 출

연해 운영 중인 여도초·중학교를 공립으로 전환, 도교육청에 기부채납기로 했다. 산단 관계자는 “1980년대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여도 초·중학교 운영비로 연간 46억~48억 원이 드는데다 기업체 직원 자녀 위주로 입학해 허가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여수산단 입주 기업 도교육청 수용 '주목'

사는 등 부작용이 있어 기부채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GS 칼텍스와 LG 화학, 한화, 대립산업, 금호석유화학, 여천 NCC, 호남석유화학 등 7개 출연회사는 회사 관계자와 여도 초·중학교 교감, 평교사 대표, 여도학원 법인 사무국장 등 총 12명으로 ‘학교운영 방

향 개선 전담팀’을 구성했다. 산단 관계자는 “여도 초·중학교의 공립 전환에 대한 입주업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전남도와 도교육청, 여수교육청 관계자들과 만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공립 전환이 쉬운 문제는 아닌 만큼 주민들의 여론, 산단의 입장, 학교 수급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타미정해반디
타미정해반디 전문점
0328-7758

부동산 대출중개사
부동산 대출중개사
0328-7758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0328-7758

신속활장면 일식요리의 명기 청하
신속활장면 일식요리의 명기 청하
0223-7037 / 224-5002